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, 건설 현장 근로자 위한 LED 안전 전광판 사업 '눈길'

✎ 홍승태 기자 | Ⓜ 승인 2025.06.08 16:44



▲ 충북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전광판 설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[동양일보 홍승태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가 지역 내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LED 안전 전광판 사업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.

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LED 안전 전광판 설치사업은 내·외국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.

전광판에는 △안전보호구 미착용자 퇴출 △중장비 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△중량물 하부 출입금지 △단부 안전난간 설치 △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 등 안전과 관련된 문구들이 표출된다.

특히 영어와 중국어, 태국어, 베트남어 등 다국적 언어로 외국인 근로자 경각심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최 본부장은 “LED 안전 전광판 운영 확대를 통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의식 함양을 지속해 선제적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홍승태 기자 hongst1125@dynews.co.kr



홍승태 기자 hongst1125@dynews.co.kr